

# 승리 '성접대 의혹 카톡' 권익위로



자신이 운영에 참여했던 클럽 버닝썬에서 '성접대'를 한 의혹을 받고 있는 승리가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경찰 "협조 요청... 자료 넘기지 여부는 권익위에서 결정"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의 해외 투자자 성접대 의혹 관련 카카오톡(카톡) 대화 일체가 4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권익위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오전 권익위에 자료 협조 요청을 했다"며 "경찰에 자료는 넘기지 여부는 권익위 내부 회의를 거친 뒤 결정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한 공익제보자는 서울 서대문구 미군동의 권익위 서울사무소에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이 자료에는 승리의 성접대 의혹에 클럽과 경찰 간 유착이 의심되는 내용 등 대화방 메시지 수가 수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권익위 서울사무소가 제보자 제출 자료를 세종시 권익위로 우편 발송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오후 "세종시 권익위를

방문했다가 자료가 우편으로 가는 중이라는 것만 확인하고 온 상태"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오전 원경환 서울경찰청장과 출입기자단의 정례 간담회에서 "아직 대화 원본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해당 메시지 내용을) 확인하려고 (관련자들을) 많이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승리 측은 지난달 자진 출석 조사에서 대화 원본이 없다고 진술했다. 승리는 지난달 27일 오후 9시에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다음날 오전 5시30분까지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승리의 성접대 의혹은 지난달 한 연예매체 보도로 알려졌다.

연예매체 'SBS funE'는 승리가 포함된 2015년 12월 6일자 카톡 대화방 내용을 바탕으로 "승리가 직원 김씨에게 외국인 투자자 일행을 언급하며 '클럽 아레나에 메인 자리를 마련하고 여자들이 부르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뉴시스



이제훈·서현진, 모범납세자

대통령 표창...국세청 홍보대사

영화배우 이제훈(35)과 탤런트 서현진(34)이 모범납세자로 선정됐다.

이제훈과 서현진은 4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제53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모범납세자는 국세청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납세자 중 선발 기준에 따라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국세청은 "이제훈과 서현진은 성실납세를 통해 국민의 의무를 다하고자 노력했다"며 "성실납세 문화 조성에도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서현진과 이제훈은 단상에 올라 홍남기(59)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서 대통령 표창을 받은 뒤 악수했다. 두 사람은 1년간 국세청 홍보대사로 활동할 예정이다.

이제훈은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를 통해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것만으로도 영광인데 대통령 표창이라는 큰 상까지 뒤서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더욱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 국민의 의무를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뉴시스

## 양현석, 문서 정과파쇄 일정표 제시... 승리 의혹 해명

양현석(49)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파쇄차와 관련한 의혹을 해명했다.

새벽에 서울 합정동 YG로 파쇄차가 드나드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버닝썬 논란'에 휩싸인 그룹 '빅뱅'의 승리(29)와 연관된 문서를 급히 처리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샀다.

양현석은 4일 오전 인스타그램에 "나도 궁금해서 한번 확인해왔다. 매년 3개월에 한번씩



분기별로 진행해온 절차"라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열을 전 전 직원들에게 통보, 언론 보도 후 파기 업체에서 연락, 현재 업체에서 해당물품을 파기하지 않고 임대 참고에 그대로 보관 중입니다"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작년 2월28일, 5월29일, 8월28일, 11월28일 '폐기·보안폐기 일정 안내의 건'으로 문서를 처리한 증명서를 첨부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새벽 YG 건물로 기록물 파쇄 서비스 업체 차량 2대가 들어간 모습이 포착됐고, 전날 승리가 경찰에 자진출석한 것과 맞물리면서 각종 의혹이 쏟아졌다. /뉴시스

## 영화 '항거: 유관순 이야기' 지난 주말 흥행성적 1위

영화 '항거: 유관순 이야기'가 주말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다.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항거: 유관순 이야기'는 2~3일 전국 1094개 상영관에서 8674회 상영해 34만3587명을 모으며 흥행성적 1위를 기록했다. 누적관객은 79만1052명.

3·1 만세운동 이후 고령인 충남 병천에서 '아우내 잠터 만세운동'을 주도한 유관순(1902~1920)이 서울 서대문 감옥에 갇힌 후 1년여의 이야기다. 영화 '강직'(2006), '내 죽음을 알려라'(2009), '10억'(2009) 등을 연출한 조민호(52)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고아성(27)이 유관순 역을 맡았다.

2위는 '사바하'다. 955개관에서 7406회 상영해 28만4381명을 들었다. 개봉 11일 만에 200만 관객 고지를 밟았다. 누적관객은 214만8535명.

'검은 사제들'(2015)을 연출한 장재현(38) 감독이 4년 만에 내놓은 신작이다. 신홍종 교의 비리를 찾아내는 종교문제연구소 '박목사'(이정재)가 의문의 인물·사건을 마주하면서 시작되는 미스터리 스릴러물이다. 이정재(46)·박정민(32)·진선규(42)·이다윗(25) 등이 출연했다. /뉴시스



## 박보검, 영화 '서복' 캐스팅

탤런트 박보검(26)이 영화 '서복'(가제)에 캐스팅됐다. '차이나타운'(감독 한준희) 이후 4년 만의 스크린 복귀다.

'서복'은 인류 최초의 복제인간을 소재로 한 작품이다. 앞서 공유(40)가 전지 정보국 요원 '기현' 역으로 캐스팅됐다. 박보검은 인류 최초 복제인간 '서복'을 연기한다.

영화 '건축학 개론'(2012), '불신지옥'(2009) 등을 연출한 이용주(48)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다음달 촬영에 들어간다. /뉴시스





2019 대한민국 대표축제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www.firefly.or.kr

2년 연속 문화관광 대표축제 선정

# 무주 반딧불축제

Muju Firefly Festival

2019. 8.31 토 ~ 9.8 일

